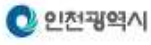
		<h2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2>		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 인천광역시 </div>		
배포일자		2021년 2월 19일(금) 총 3매				
담당 부서	미추홀도서관	담당자	• 정보정책부장 라경은 ☎440-6661 • 담당자 김태은 ☎440-6663			
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2f1; padding: 5px;">사 진</div>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2f1; padding: 5px;">참고자료</div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2f1; padding: 5px;">보 도 일 시</div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기후변화, ‘2021 미추홀북’ 으로 함께 읽어요!
- 2021 미추홀북, 어린이 · 청소년 · 성인 분야 3권 최종 선정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미추홀도서관에서 올 한해동안 인천시민이 함께 읽고 공감할 수 있는 ‘2021 미추홀북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.

- 미추홀북 선정 시민투표는 지난 1월 18일(월)부터 2월 7일(일)까지 ‘기후변화와 공생(共生)’을 주제로 관내 도서관, 지역서점 등 22곳에서 온·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, 8,651명의 시민이 참여해 어린이 · 청소년 · 성인 분야의 도서 3권을 선정했다.

- 어린이 분야 선정도서는 『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(최원형 글, 이시누 그림)』로 일상생활 속의 행동들이 환경과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만화와 함께 설명해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점이 특징이다.

- 청소년 분야 도서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문제점을 쉽게 설명하고

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는 『왜 기후변화가 문제일까?(공우석 저)』가 선정되었다.

- 성인 분야 선정도서는 『천 개의 파랑(천선란 저)』으로 소외된 인간, 로봇, 동물이 종을 넘어선 연대를 통해 공생의 길로 나아가는 따뜻한 파랑을 그려낸 장편소설이며, 한국과학문학상에서 장편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다.
- 한편 선정도서는 3월 중 관내 도서관에 배부되어 자료실 및 홍보 코너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, 선정도서와 연계한 독서토론회, 공연, 북콘서트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인천시민들과 함께하여 미추홀 북의 의미와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.
- 추한석 미추홀도서관장은 “전염병과 자연재해로 그 어느 때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”며, “미추홀북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서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”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.
- 선정도서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추홀도서관 홈페이지(www.michuhollib.go.kr)와 전화(☎440-6663)로 문의하면 된다.

<붙임> 관련사진

<선정 도서 사진>

